

# 对对公公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번지 가톨릭회관 510호 TEL 02 • 777 • 2013 / 757 • 7851 FAX 02 • 778 • 7427 http://www.clak.or.kr E-mail: clak@catholic.or.kr

발행일: 2009. 3. 9 발행인: 한홍순





### 🌇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4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2
4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6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7
	〉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8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10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10
	〉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11
4	한국평협 회원 단체	
	〉레지오 마리애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	13
	〉 한국가톨릭 간호사협회	13
	〉한국가톨릭 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13
	〉한국가톨릭 언론인협의회	14
	〉 한국가톨릭 여성협의회	15
	〉한국가톨릭 의료협회	16
4	좋은 영화보기	18
		18
4	교황님 말씀	19









◎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2009년 제1차 상임위원회의가 오는 4월 24(금) ~ 25일(토) 마산교 구 가톨릭교육관에서 개최됩니다.

### 🕠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u> 한홍순 회장 고별사</u>

지극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 추기경님.

추기경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어떠한 부당한 세력도 감히 범접 못할 겨레의 성지로 일궈 놓으신 명동 성당에 서 모든 신자와 수많은 국민이 함께한 가운데 이승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 저희 마음은 한없는 슬픔으로, 그 러나 동시에 기쁜 희망과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온 국민이 추기경님의 선종을 애도하는 것을 보며 저 희는 평생을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pro vobis et pro multis)". 우리 민족이 인간답게 살도록 하기 위하 여. 그리하여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요한 10. 10) 헌신하며 착한 목자의 삶을 사신 추기경님이 무 척 자랑스럽고 고맙고. 그리고 이러한 목자를 우리 민족 에게 보내 주신 하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추 기경님께서는 당신 죽음까지도 도구로 삼아 우리와 모 든 이를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는 영원한 사제요 선교사 이십니다. 참으로 추기경님께서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 해 땅에 떨어져 죽는 밀알 같은 (요한 12, 24 참조) 삶을 사신 분. 저희가 걸어가야 할 구원의 길을 말로만이 아 니라 행동으로 보여 주신 희망의 증인이십니다. 오늘 추 기경님께 이승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면서 언젠가 저 희도 하느님께 나아가 추기경님을 다시 뵈올 때까지 추 기경님의 가르침을 따라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땅에 떨 어져 죽는 밀알 같은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도 추기경님처럼 희망의 증인으로 살도록 힘쓰며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하는 데 이바지하기로 다짐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반세기 동안 저희는 추기경님께서 저희 곁에 계셔서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저희에게 이토 록 큰 행복을 누리게 해 주신 추기경님, 이제 더 이상 육 안으로 추기경님을 뵈올 수 없게 된 것은 크나큰 슬픔이 지만 추기경님께서 이승에서 그토록 그리워하시던 어머 님과 함께 이제 주님 곁에서 주님을 마주 대하며 크나큰 행복을 누리고 계시리라는 믿음은 저희에게 커다란 위 안이 됩니다. 은퇴하신 뒤에는 혜화동 신학교 사제관에 기거하시며 우리 사회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마다 예언자의 지혜로운 가르침으로 올바른 길을 일러 주시던 추기경님. 이제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 민족을 돌 보시며 저희를 축복해 주십시오. 매일매일 추기경님을 인도해 주셨고 이제는 추기경님을 당신 아드님이신 우 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하 느님의 어머님이요 추기경님의 어머님이신 성모님께 추 기경님의 영혼을 돌봐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 2009, 2, 20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 한홍순



###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한국평협 고 김수환 추기경의 뜻 받들어 감사와 사랑의 캠페인 벌이기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한홍순, 담당 민병덕 신부)는 지난 2월 21일 오후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7층 강당 에서 제42회 총회를 갖고 2008년도 사업실적과 2009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한국평협은 올해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 라 '가정의 복음화와 선교활동 강화'라는 활동지표 아래 우리성가 작곡공모 수상작을 보급하기 위한 음반을 제작하고, 평 신도사도직 활성화를 위한 교육편람을 개발하는 등의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2월 16일 선종하신 김수환 추기 경의 뜻을 널리 전하고, 실천하는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총회 직전 기념미사에서는 전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인 송상순 회장의 상임위원 활동에 대한 감사패가 수여 되기도 했다. 이날 미사 강론을 통해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위원장인 염수정 주교는 "김 추기경님이 우리에게 남 기신 것은 각자의 성소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라며 "우리 모든 가정이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초 기지가 되어 복음의 빛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봉사해 달라."고 말했다.

(가칭) "서로 사랑하세요" 전국민운동은 고 김수환 추기경에 대한 온 국민들의 존경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고인이 보여 주신 모범을 따라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이미 갖고 있는 사랑과 감사의 씨앗을 싹 틔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감사함으 로써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꾸며나가자는 운동이다.

이 운동의 홍보를 위해 우선 리플렛과 스티커를 제작 배포하고, 사랑의 선교운동과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도 함께 벌여나 갈 계획이다



### 각 명동에서 제25회 가톨릭대상 시상식 가져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지난 1월 7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제25회 가톨릭대상 시상식을 갖고 사랑부문 에 허상도씨와 최순자씨, 특별상으로 최민호씨에게 상패와 상금을 수여했다.

한홍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상을 수상하게 된 이 분들과 같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 세상에 하느님의 사랑이 더 넓게 퍼지게 된다."며 "그간 봉사하신 삶에 하느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기를 바란다."며 축하했고.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 위원회 위원장인 염수정 주교는 시상 후 축사를 통해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사랑으로 증언한 데 대해 다소나마 감사의 뜻 을 표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분들과 함께 우리 모두 만민선교에 앞장서자."고 말했다.

사랑부문 대상을 수상한 허상도씨는 "하느님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며 수상소감을 말했고. 청각



###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장애를 갖고 있는 최순자씨 역시 "다른 공부는 설명이 필요하지만 서 예는 그렇지 않다"며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 항상 배우 는 마음으로 글을 썼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유도선수로서 특별상을 받게 된 최민호씨는 "모든 것은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다"라며 "앞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며 운동하겠다"고 소 감을 밝혔다.



### 이탈리아 5중창 한국에서 거룩함으로의 여행



한국천주교 평산도사도직협의회는 주한 이탈리아 문화원, 주한 교 황대사관과 공동으로 지난 1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의 싼타 루치아 델 곤팔로네 성당 성가대(Cappella musicale di S. Lucia del Gonfalone)의 오중창단을 초청해 "거룩함으로의 여행-만 백성의 성가(Viaggio nel Sacro-Inni e canti spirituali dei popoli)" 다성 음악-기악 콘서트」를 개최했다.

1월 10일 광주 임동성당, 11일 대전 노은동성당, 12일 서울 명동대 성당. 13일 분당 요한성당에서 각각 열린 콘서트는 매번 자리를 가득 메울 정도로 성황을 이뤘고, 특히 앵콜곡으로 준비한 나운영 작곡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를 관객과 함께 부를 때는 무대와 객석이 하 나가 되기도 했다.

이 콘서트는 지휘를 맡은 마에스트로 피에트로 비지냐니가 다년간 진행해 온 인간학적 음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 초연이다. 피에 트로 비지냐니는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를 여행하며 그 곳 원주민들 의 전통 음악, 즉 성가와 영가를 채보해 가톨릭교회의 전통 음악인 그레고리오 성가와 미국 흑인들의 성가, 멕시코와 중남미 원주민들 의 영가. 이슬람교도들의 노래 등과의 교류와 나눔을 추구해 왔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전통의 음악이 각기 고유한 특성을 그대로 간직한 가운데 하나의 음악적 사상 안에 공존하는 새로운 형 태의 음악을 만들어냈다.

"거룩함으로의 여행-만백성의 성가" 콘서트 여러 민족들이 문화와 전통은 서로 달라도 하느님을 찾고 신앙을 추구하며 인간과 하느님 의 관계를 발견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은 보편적인 것이라는 것을 보 여줬다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호

### <mark>서울</mark>대교구 평산도사도직협의회

### 2009년 제39회 정기총회 개최 가정의 복음화와 선교활동 강화하는데 의견 모아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한홍순, 담당 민 병덕 신부)는 지난 1월 17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제39회 정기총회를 통해. 2008년 사업실적과 결산. 2009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가정의 복음화와 선교활동 강화'를 활동지표로 ▲복음 화를 위한 평신도 교육 활성화. ▲가정사도직 활성화. ▲ 생명존중문화 확산. ▲복음화 2020운동 달성을 위한 선 교활동 강화. ▲사회복음화 증진을 위한 활동 강화. ▲순 교자 현양과 시복시성 운동. ▲40주년 기념사업 등 7가 지 중점 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세부 사업으로 '평신도학교'로 통합된 위원회별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와 (가칭) '아버지학교' 실시, 제3인생기 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선교포럼' 등 선교교육의 지역 별 실시, 40주년 백서 편찬 등의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 다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은 이날 미사 강론을 통해 "우리 가톨릭교회가 외적으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 으나 외적인 발전에만 그친다면 절반의 성장"이라며 "균 형을 이루는 참된 발전과 성숙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하 고 "모든 신자 가정이 행복해야 이웃에게 희망을 줄 수 있으며 우리 자신이 복음의 빛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가 정과 본당. 교구와 사회도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 문체 소식

### 서울가톨릭미술가회 -창립 40주년 특별전-



서울가톨릭미술가회(회장 이광미, 담당 지영현 신부) 는 지난 2월 4일부터 15일까지 평창동 가나아트센터에서 제36회 정기전 겸 창립 40년 특별전을 열었다. 이번 전 시에는 최종태 교수와 같은 원로작가를 비롯해 젊은 작가 등 110명의 작가들이 참여했다. 전시내용은 서양화. 한국 화, 조각, 사진, 판화, 도예, 공예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들을 선보였다.

전시 개막일인 4일(수)에는 교황대사 오스발도 파딜랴 대주교와 역대 담당사제였던 장익 주교. 장동하신부. 박 항오 신부, 그리고 이기헌 주교회의 문화위원장, 한홍순 평신도사도직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1970년 3월 19일 창립된 서울가톨릭미술가회는 1994 년 미술가들의 수호성인 안젤리코의 축일인 2월 18일을 '한국 가톨릭 미술가의 날'로 정했으며, 대구, 광주 등 각 교구에서도 가톨릭미술가들의 모임을 결성할 수 있는 발 판을 마련했다. 1995년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로 정식 출 범한 미술가회는 이듬해 교회 미술에 공헌한 작가들의 작 품을 평가하고 이들의 작품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가톨 릭 미술상'을 제정. 오늘에 이르렀다. 서울가톨릭미술가 회 담당사제인 지영현 신부는 "한국 가톨릭교회 미술은 회원들의 아낌없는 노고와 열정으로 발전에 발전을 이루 어 왔다"며 "미술가회 활동을 통해 하느님 백성들이 주님 과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장이 마련되었으며 앞으로도 이 런 장을 마련해주시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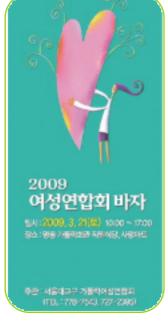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제14회 가톨릭미술상 수상자는 특별상에 최종태, 본상에 박재환-건축부문, 문진호-건축부문, 김일영-조각부분이다. 양승춘 선생은 2009년도 가톨릭 미술상 심사 총평을 통해 "최종태 선생님의 작품세계는 종교적 신심이성 미술과의 만남으로 자연스럽게 작품으로 반영되어 우리 안으로 스며들고 있다."고 말했다.

### 서울대교구 기톨릭여성연합회 2009 기톨릭여성연합회 바자

서울대교구 가톨릭여성연합회(회장 권경수, 담당 민병 덕 신부)는 오는 3월 21일 명동가톨릭회관 직원식당과 사랑마트에서 2009년 가톨릭여성연합회 바자를 개최한다. 이번 바자는 봄이 오는 길목에 서서 사순시기에 대한 묵상을 하며 우리 주위의 따뜻한 마음과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 특히, 조손가정, 폭력에 시달리며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여성들, 학비를 조달할 수 없는 소년·소녀가장 그리고 AIDS환우들에게 넉넉한 사랑의 손길을 전하기 마련된다. 품질이 우수하고 귀한 물품들을 이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며 아울러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나눔의 잔치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이다. 판매품목으로는 VIP기증품(추기경님, 주교님, 한국주재외국대사등), 식음료, 주류, 건강식품, 의류, 쥬얼리, 성물, 미술품,

잡회류, 약품, 환경제품, 각종 반찬류, 운동용품, 먹 을거리 및 기타상품으로 아주 풍성하게 개최될 예 정이다.



### <mark>인천</mark>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본당 사목회장 및 교구제단체장 연수 개최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최중우, 담당 김용 환 신부)가 주관한 본당 사목회장 및 교구제단체장 연수가 지난 2월 14일 교구 신청사에서 있었다. 210여명이 참가한 이번 연수는 인천교구 설정 50주년 총괄 담당 김용환 신부의 인사 및 취지 말씀에 이어 차동엽 신부의 본당활성화 방안 EP-1234 '성공적인 교회들에는 비밀이 있다'는 주제로 열강이 있었다. 이어서 교구장 최기산 주교의 주례로 파견미사가 이어졌는데 최주교는 강론에서 "한국 교회 역사에서 위대하는 성인들의 삶을 본받아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을 이 시대의 평신도들이 계승해야한다"며 "예수 그리스도 만이 영원한 생명이고 하느님의 나라로 이끄실 분이므로 사랑자체이신 하느님을 내 안에주님으로 모셔야 하며 나눔의 삶을 살아야 행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교구 설정 50주년 추진 성공 기원미사

인천교구와 인천평협이 주최하는 교구 설정 50주년 (2011년)추진 성공 기원미사가 2월 24일 오후 2시 답동주교좌성당에서 봉헌되었다. 인천교구는 교구민 전체가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시대적 사명을 새롭게 인식하고 쇄신과 비전을 제시할 미래 교회상을 확립해 향후 100주년을 향한 힘찬 도약의 발판이 되고 교구민의 뜻과 정성을 담은 가시적인 봉헌으로 하느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자 한다.

인천교구는 50주년 기념 표어인 "새 성령강림 New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Pentecost 2011"을 내걸고 50주년 기념 3개년 로드맵과 50주년 기념 5대 사업을 발표했다. 최주교는 미사에서 성 인들이 미리 닦아놓은 길을 우리가 잘 가야 하며 2년 앞으 로 다가온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추진위원 임명장 수여식이 거행됐다.



### 평협 담당사제 사목국장에서 사무처장으로 변경

인천평협은 2009년 2월부터 담당사제를 교구 사목국장 인 안규태 신부에서 사무처장 김용환 신부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 수원 평협 임원들, 2009년도 신년하례식 참석

수위교구는 지난 1월 2일 정자동 주교좌성당에서 교구 장 최덕기 주교와 부교구장 이용훈 주교를 비롯한 각 대 리구장 신부, 원로 사목자들, 사제단과 수도자, 신학생, 평신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구 신년하례미사를 가졌 다

최덕기 주교는 강론에서 2()()8년도 부교구장 탄생과 31명의 가장 많은 새사제 탄생, 대리구제의 성공적 정착. 장애인시설. 출소자 자활센터인 밝음터와 이주사목센터 개소 등의 성과에 대해 치하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 을 다한 사목자, 수도자, 모든 평신도들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2009년도 중점사목목표를 전하면서 2013년 교구



설정 5()주년을 위한 준비위원을 구성, 본격적 활동을 이 루어 교회가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전환점을 이룰 수 있도록 협조와 기도를 부탁했으며 경제 한파와 어려운 경 제 전망 앞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솔선수범의 행동을 보여 잘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 날 신년하례 미사에는 교구평협 정태경 회장을 비롯 한 많은 본당 총회장이 참석했고. 정태경 회장은 평신도 를 대표해 교구장과 신년인사를 나누었다.

#### 2009년도 상반기 총회장 연수

올해로 교구 평협 설정 40주년을 맞는 수원교구 평신 도사도직협의회(회장 정태경, 담당 문희종 신부)는 지난 1월 19일 교구청 지하대강당에서 '2009년도 상반기 총 회장 연수 및 교구장과의 만남'을 개최했다.

연례행사로 열린 이번 연수는 담당사제인 문희종 복음 화국장 신부의 '교구조직의 구성과 관리운영'에 대한 강 의에 이어, 교구 복음화국 정용재 계장의 강의로 수원교 구 5대 중심 사목 중 성경. 간부육성. 복음화(선교) 사목 중심으로 실제 신자들의 의식과 행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 한 보고서를 토대로 향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주력해







####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야 할 방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오후에는 교구장 최덕기 주교의 제2차 바티칸공의 회, 주교회의 지침서 등의 문헌을 토대로 '평신도 사도직' 과 '2009년 교구 주요 사업'에 대한 말씀의 시간을 가졌 다. 최주교는 "과거에는 평신도가 성직자를 보조하는 역 할에 그쳤지만, 성직자가 감당할 수 없는 평신도 사도직'의 루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최덕기 주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 목표가 하느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지만,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는 각 직분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가 다르기에 "성직자 수도자가 세상 속에서의 복음화 참여에 한계가 있듯이역시 평신도도 교회 참여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미래의 교회에서는 성직자들이 본연의 임무에헌신할 수 있도록 평신도들은 전문적, 주도적, 유권적으로 교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평신도사도직 활동은 "그리스도교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올바른 신앙생활에 기초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가장 먼저 자기 성화와 가정성화를 우선적으로 이루고, 더 나아가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등 세상 속의 삶을 영위하면서 신덕, 망덕, 애덕 실천을 통해서 세상을 정화시키고 신앙을 증거하는 '누룩' 역할로서 복음정신에 따라 하느님나라를 적극적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09년에는 "첫째, 선교정신을 바탕으로 바오로 해를 더욱 의미 있게 보낼 것, 둘째, 성가정 운동 3단계 실천사항으로 자녀 중심으로 기도하고 기도습관을 기르기, 셋째, 2013년 교구설정 50주년, 곧 희년을 잘 준비하고, 100년을 바라보며 수원교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넷째, 경제 한파와 암울한 경제전망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실천으로 잘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 날 연수에 참석한 총회장들은 평신도사도직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함께 가정과 사회, 본당 안에서 복음화에 더 욱 힘 쓸 것을 다짐했다. 하반기 본당 총회장 연수는 7월 에 개최될 예정이다.

#### 평협과 제단체 사목방문

교구 내에서 공식적으로 인준을 받아 활동하는 모든 단체가 목적대로 잘 실행하고 있는지, 교구장의 사목방향과 잘 맞추어 나가는지 점검해 보는 2009년 평협 및 제단체

사목방문이 2월 7일 교구청 5층 회의실에서 최덕기 주교 와 평협을 비롯한 교구 18개(총23개) 단체의 임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목방문은 회장인사, 주교님 말씀, 평협 및 단체 보고, 주교님 총평으로 진행되었으며, 정태경 평협회장은 인사 말에서 "모든 이웃들의 사랑을 위해,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봉사자들의 역할이 막중하고 소중하다."고 하면서 "신앙선조들의 삶을 본받아 우리 평신도모두는 겸손과 순명의 삶으로 친교와 일치를 이루어 '함께 하는 교회', '평신도교회'를 이루도록 심혈을 기울여나가자"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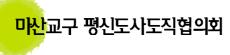
교구장 최덕기 주교도 시작말을 통해 "평신도사도직에서 가장 우선시할 것은 자기성화와 가정성화를 먼저 이루어야 하며, 단체의 이기주의와 폐쇄성을 경계하고, 세속적 단체운영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각 단체들의 실적과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 와 격려와 방향을 제시했으며, "실현 가능성 있게 목표를 잘 세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조직을 갖추고, 단원들과 함께 영성적 친교를 이루어 나가기"를 당부했다. 또한 "열정을 가지고 활동하는 모든 단체에 감사를 드리며, 수 원교구 50주년을 준비하는 해인만큼 준비위원회 위원위 촉에 적극 참여하고, 평협 설립 40주년을 맞이해 함께 평 협의 위상을 높여나가길 바란다"고 하면서 총평을 마무리 했다.









### 2009년 정기총회 및 복음화세미나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강신근, 담당 이형수 몬시뇰)는 지난 1월 31일(토)부터 2월 1일(일)까지 마산가톨 릭교육관에서 '2009년 정기총회 및 복음화세미나'를 개최 했다.

교구 내 각 본당의 회장단과 교구단체장 등 23()명이 참 석해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의 일치와 화합 그리고 평신도 의 열정을 드러내는 계기를 마련했다.

제1부에서는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 탄생 4()주년의 해 인 2009년을 맞아 '교구 평신도사도직활동 지침서'를 발 표하고 평신도사도직운동이 성공할 수 있도록 다함께 최선 을 다하기로 했다. 평신도사도직활동지침서는 교구장의 사 목교서를 바탕으로 평신도사도직 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목적과 의미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활동시항을 담고 있다.



제2부 정기총회에서는 2008년도의 사업과 결산, 2009 년도의 예산과 사업의 승인 그리고 교구복음회를 위한 특 별사업인 비전1030운동을 위해 '복음화아카데미(선교학 교)를 개설해 복음화에 대한 평신도의 교육과 체험을 지원 하기로 승인했다. 또한 '복음화대상'을 통해 복음화에 대 한 열정을 드높이기로 했다.

또한 2008년도 상임위원회에서 결의한 보다 효율적인 교구 평신도사도직 운동을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실질적인 사업과 활동을 위해 '회칙개정인' 을 승인했다.

또한 2008년 11월 평신도대회에서 함께 다짐한 평신도 선언의 '평신도사도직 실천다짐'을 다시 한 번 다짐하는 선포식을 가짐으로써 평신도 사도직의 열기를 더했다.

이로써 마산교구 평신도 사도직 운동은 보다 탄력을 받 고, 교구 모든 평신도지도자들이 함께 하는 '새로운 시작' 을 여는 계기를 마련했다.

교구장 안명옥 주교는 "세계경제의 어려움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원인을 찾는 보다 근원적인 자세로 언제나 그리 스도와 함께 하는 여정을 통해 교구 모든 평신도 지도자들 이 언제나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교회발전을 위해 최선 을 다해 주기를 부탁하며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특별한 사 랑과 애정으로 그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다.

제3부 복음화세미나에서는 노길명 교수(고려대 시회학 과)가 '현대문화의 흐름과 복음화'라는 주제의 강의로 평 신도 지도자들의 의식을 일깨워줬다. 노교수는 강의에서 문화의 복음화를 위한 평신도의 참여와 노력으로 다가오 는 영성의 시대를 지혜롭게 헤쳐 나가기를 역설하고 새로 유 문화적 복음화를 위한 21세기를 열어갈 수 있는 교회의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담당시제인 이형수 몬시뇰은 "이제부터 정말 새로운 시 작으로 변화되자. 먼저 의식을 새롭게 하며 '고정관념'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형식주의가 아닌 실제로 참여하고 실 천하는 봉사와 증거의 삶으로 마산교구를 발전시키자"며 격려했다.

이번 정기총회 및 복음화세미나는 비전1030평신도운동 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참으로 소중한 소명의 장이었다.

### <mark>광주</mark>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평협 · 여성위원회 정기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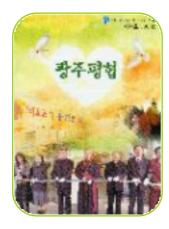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정기수, 담당 김 종주 신부)는 1월 31일 제38차 정기총회를 광주가톨릭대 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는 여성위 원회(위원장 황순자, 담당 김종주 신부)와 합동으로 실시 해 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바오로딸수녀회 김영복 데레사 수녀의 '바오로 사도의 사도성'. 사목국장 김종주 신부의 '2009년 교구장 사목교서에 따른 실행지침' 특강 이 있었다. 2008년 활동사항과 결산을 발표하고 2009년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한 논의와 승인 후 파견미사와 주교 님과의 신년하레가 있었다.

### 광주평협 제II호 발간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 협의회는 2008년 한 해 동안 의 평협과 여성위원회, 지구. 단체의 활동을 정리하고, 사 제와 평신도의 신앙체험 등 다양한 글들을 실은 「광주평 협 제11호 2.000부를 발행 해 교구 내 전 본당에 배포했 다.

#### 지구평협 사목협의회 임원연수회

2009년 새로운 사목협의회가 구성돼 활발한 활동을 시 작하는 시점에서 각 지구별로 임원연수회를 개최해 특강 과 분임토의를 통해 각 본당의 사례들을 듣고 의견들을 나누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목포지구: 2월 15일, 산정동 레지오미리애 100주년기념관, 180여명 참석

특강: "사도직 활성화의 해" 김재기 신부

▶ 서부지구 : 2월15일, 염주동성당, 130여명 참석 특강 : "교구장 사목교서에 대한 실행지침" 김종주 신부 특강2: "한국 순교자들의 영성" 옥현진 신부

▶동부지구: 2월21일, 봉선동성당, 150여명 참석 분임토의



▶광주평협 목포지구연수



▶광주평협 농부지구연수

### <동정> 서정권 광주평협 사무국장 광주학강초등학교장 승진 부임

광주평협 서정권 베드로 사무국장이 3월 2일부로 교장 으로 승진되어 광주 학강초등학교로 첫 부임을 했다. 평 소 아이들에게 남다른 사랑을 쏟아 참 교육자의 길을 묵 묵히 걸어가고 있다.

### <mark>전주</mark>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2009년 교구 신년 하례식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강상근, 담당 유장 훈 몬시뇰) 주관으로 지난 1월 2일(금) 오후2시 주교좌 중 앙 성당에서 2009년도 신년 하례식을 가졌다.

교구장 이병호 주교를 비롯한 사제단, 신학생, 수도자, 평신도등 7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부 미사와 제2부 친교 및 나눔 잔치로 진행됐다.

이주교는 강론에서 어느 노(老)주교로부터 온 편지의 성령쇄신 신앙체험담을 소개하면서 "활활 타오르는 성령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옛날의 하느님 말씀이 지금의 내 이 야기이고 그리스도는 주님이라기보다는 형님처럼 가깝 고. 전례는 생생한 체험의 현장이다"라며 "성령 안에서





#### 전주교구 평산도사도직협의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한 영원한 생명즉, 천당에서 살게 된다."고 말했다. 미사를 마치기 전 신자들은 평협 회장의 안내로 교구장과 사제들에게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새해인사를 나누고 이어서 신자들 서로에게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새해 인사를 뜨겁게 나눴다.

이주교는 덕담으로 "형제 여러분,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필립4.6~7)"라고 말하며, 주위 신자들에게도 이 덕담을 들려주라고 당부했다.

미사 후에 필립4장 6~7절 말씀이 인쇄된 교구장 상본을 신자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고 중앙 성당 마당과 강당

에서 떡과 따뜻한 생강차를 나누며 새해 덕담을 서로 주고받으며 흐뭇하고 화기애애한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 레지오 마리애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

### 기획위원 간담회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 레지오 마리애(단장 팽종섭, 담당 민병덕 신부)는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2일에 걸친 기획위원 간담회를 실시했다. 첫날 민병덕 신부는 미사 중에 기획위원 모임의 취지와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서 계속된 자유로운 토의에서는 새롭게 구성된 '세나뚜스당면 과제'와 '소년 쁘레시디움 단원을 위한 길잡이'에서의 내용 검토, 교본에서 '번역 및 내용'에 대한 그동안의문제를 심도 있게 다뤘다. 이어서 세나뚜스와 레지아의관계 설정, 레지오를 왜 하는가? 각 평의회의 충성도 문제, 도제제도의 운용 등 3개조로 나누어 조별 토론하고,이튿날에는 발표 및 의견 수렴 등 근본적이고 현실적인문제에 대한 허심탄회한 나눔이 있었다. 지난 361차 세나뚜스 평의회에서는 각 레지아 단장 10명과 세나뚜스 간부로 이루어진 '기획위원회'를 승인한 바 있다.



### <mark>한국</mark>가톨릭 간호사협회

###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협회지(vol.36) 발간

전국에서 활동하는 가톨 릭간호사들의 직접참여로 1년에 1회 만들어지는 한 국가톨릭간호사협회지가 2009년 1월 발행되어 전국 으로 배포되었다.



### 제31회 정기대의원 총회, 제46회 전국이사회 (2009년 제 1회) 및 피정 개최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회장 김남초)는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중앙이사 15명과 전국 13개 교구의 대의원 등 총 112명이 참석해 제31회 정기대의원 총회 및 제46회 전국이사회와 피정을 개최했다.

전국이사회에서는 오는 8월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3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념행사와 30주년 기념사를 발간하기 위한 전반적인 내용(예산 포함)을 논의했고, CICIAMS 세계대회 참석 건및 북한 종합검사・검진센터 기공식 참석에 대한 논의를 했다.

제31회 전국대의원총회에서는 2008년 사업보고 및 결산과 200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및 승인이 있었으며, 작은형제회 지정호 신부의 '신앙의 터전인 가정' 및 오수록 수사의 '봉사의 정신'등 뜻 깊은 강의가 진행됐다.



### 한국가톨릭 성령쇄신봉사지협의회

### 정기총회 개최 "6월 세계성령대회 준비 박차"

한국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는 1월 20~21일 충북 음성 꽃동네 사랑의 영성원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오는 6월 꽃 동네에서 열리는 세계성령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번 총회에서 새 회장에 박효철(청주교구) 신부를 선출하고 부회장에 오창열(부산교구) 신부·신상현





(예수의꽃동네 형제회) 수사 · 심요섭(마산교구) 이영호(청 주교구)씨를 뽑았다. 2009 세계성령대회 한국위원장은 오태순 신부가 유임됐다.

협의회는 세계성령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3,000 명의 중재기도워들이 기도하고 있으며 성령대회 참가 외 국인들의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해 성령쇄신 관련 용어 해 설집을 외국어로 발행하기로 했다.



박효철 신임 회장 신부는 "성령은 곧 '일치' 입니다. 성 령쇄신봉사자가 일치되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세계성 령대회를 통해 성령쇄신봉사자뿐 아니라 한국 교회 구성 원 모두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은 교회의 혼이며 혼이 없으면 껍데기에 불과하다"면서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가 최근 펴낸 「올바른 성령 이해」의 가르 침에 따라 성령쇄신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점들을 긍정적 으로 바꿔나가겠다"고 말했으며 우선 세계성령대회 준비 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성령대회를 통 해 한국 교회와 성령쇄신운동이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도 록 전 교구가 한마음으로 준비하자"면서 이를 위해 각 교 구 대표 신부와 회장 등을 만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박신부는 "얼떨결에 중책을 맡아 두렵기도 하지만 큰 은총이라 생각하고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겠다."며 "협 의회가 교구 간 장벽을 허물고 정보를 교환하는 한편, 서 로 도와 하나 된 모습으로 성령의 불을 지피는데 초석이 되도록 새 마음으로 회장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총회에 이어 21~22일 같은 장소에서 3차 지 도자 연수를 개최하고 세계성령대회 설명회, 최창무 대주 교 주례 개회미사, 미셸 모란(영국) 세계성령쇄신봉사자 협의회장 강의 등을 진행했다.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최 대주교는

미사 강론에서 「올바른 성령 이해」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 하고 "공동선을 추구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와 하나 되고, 교도권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성령의 참된 은사"라며 "성령의 은사에 대한 식별력을 키워 성령쇄신 유동을 바르고 건전하게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 <mark>한국</mark>가톨릭 언론인협의회

#### 서울대교구 매스컴위원회 창립 [주년 행사 참석

가톨릭 언론인협의회(회장 김지영)와 서울 가톨릭 신 문·출판인협의회(UCIP·회장 황진선), 서울 가톨릭 커뮤 니케이션협회(SIGNIS · 회장 오광성) 회원들은 1월 21일 오후7시 서울 명동성당 꼬스트홀에서 열린 서울대교구 매 스컴위원회(위원장 염수정 주교) 창립 1주년 기념행사에 참 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언론인회 회원 150여명은 염수정 주교와 언론인회 담당사제 허영엽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신부 주교회의 매스컴위원회 총무 김민수 신부, 김영춘 SIGNIS 담당신부, 고준석 UCIP 담당신부, 교구 직장사목부 최수 호 신부의 집전으로 기념미사를 봉헌했다. 미사를 통해 염 주교는 "가톨릭언론인들이 매스컴을 선하게 사용하면서 동 시에 복음 선포에 적극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사 후 참석자들은 만남의 방에서 열린 뒷풀이 행사에 서 식사와 함께 음악과 대화로 즐거운 친교의 시간을 나누 었다. 미사시간과 뒷풀이 행사에서는 김태식 회원(연합뉴 스 교우화장)이 이끄는 '드림 필 앙상블'이 연주로 봉사를 했다.



#### 언론인회 회원들 고 김수환 추기경 조문

한국가톨릭 언론인회 회원들은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이 선종한 다음날인 2월 17일 저녁 명동대성당을 찾아 단체로 조문을 했다. 이날 조문에 참여한 회원들은 회장단과 고문단 (전직 언론인회 회장단) 20명으로 김추기경이 잠들어있는 유 리관 앞에서 기도를 바친 뒤 종합상황실을 방문, 염수정, 조 규만, 김윤회 주교와 허영엽 문화홍보국장 신부 등 슬픔에 젖은 가운데서도 장례행시를 치르느라 여념이 없는 서울대 교구 사제들과 봉사자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렸다.

가톨릭언론인협의회는 지난 2005년 4월 2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선종한 뒤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 허영엽 신부와 함께 한국 천주교에서도 이와 유사한 장례가 생길 경우에 대비해 언론홍보 문제와 관련, 많은 의견을 나누어왔다.

### 서울가톨릭 신문출판인협의회 월례미사

서울가톨릭 신문출판인협의회(UCIP/Seoul)는 지난 2월 19일 낮 12시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한국프레스센터 12층 한국언론재단(Korea Press Foundation) 대강의실에서 월례미시를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의 위령미사 겸 한국언론재단 가톨릭 교우회 창립미사로 봉헌했다.

담당 고준석 신부의 집전으로 진행된 이날 미사는 같은 건물에 입주해 있는 서울신문과 한국방송광고공사 (Kobaco)교우를 포함, 가톨릭신문출판인협회 회원 55명이 참석해 언론재단 교우회 창립을 축하했다.

언론재단 교우회 회장에는 이구현 유스티노, 총무에는 정민 안드레아, 고문에는 변달섭 시몬 형제가 선출됐다.

한국언론재단은 전문언론인 양성 및 언론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재교육, 저널리즘 및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조사·연구·출판사업, 여론의 다양성 및 공론장 제공을 위한 포럼 및 각종 세미나 개최, 국내외 언론교류 등 업무를 맡고 있는 언론진흥기구이다

### 가톨릭 언론인 울뜨레야 월례모임

가톨릭 언론인 울뜨레아(회장 김천수 바오로)는 1월 29 일과, 2월 25일 각각 가톨릭회관 홍보국 사무실에서 월례 모임을 열어 각자 지난 한달 간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며 성찰하는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 기톨릭언론인 산악회 성지순례

매월 전국의 성지를 순례하고 성지 인근의 산을 오르는 기톨릭언론인 산익회(회장 최흥운)는 1월 31일 영동지방 신앙의 진원지인 양양 성당을 찾았다. 회원들은 양양성당의 주임 사제로서 한국전쟁 당시 순교한 이광재 디모테오 신부의 기념관에서 참배하고 성당에서 안승철 마조리노 신부(성바오로수도회)의 집전으로 미사를 드렸다. 행사에 참여한 27명의 회원들은 이날 아침 덕수궁 앞에서 관광버스로 출발, 먼저 강원도 계방산을 등반하고 동해안의 양양성당으로 향했다. 높이 1577m의 계방산은 겨울철의 설경이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특히 이날은 산 전체의 수목에 눈꽃이 회려하게 피어 회원들은 아름답고 장쾌한 절경에 경탄을 금치 못했다. 회원들은 양양성당의 행사를 마친 뒤동해 해변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뒤 귀경했다.

언론인 산악회는 이어 2월 28일에는 김대건 신부의 유 면시절 흔적이 남아있는 경기도 용인 골배마실을 순례하고 인근 태회산(해발 644m)을 올랐다.

## 한국가톨릭 여성협의회

#### 전국이사회 서울에서 개최

한국가톨릭여성협의회(회장 권경수, 담당 민병덕 신부)는 지난 2월 25일(수)에 가톨릭회관 7층 회의실에서 한국가톨릭여성협의회 전국이사회를 가졌다. 이날 전국이사회에서는 전주교구 박온순 회장, 원주교구 김혜선 회장이 신임회장으로 처음 참석했다. 아울러 사업의 현안과제와 발전전략에 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각 교구별 2008년 사업보고 및 2009년 활동계획에 대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며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기를 기원했다. 또한 4월에 있을 제35차 전국총회 강연자 및 주제와프로그램 등을 확정했다.

한편 오는 4월 22~24일에 제35차 전국총회를 수원교 구 아론의 집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회원단체 소식

### 한국가톨릭 의료협회

#### 해외 및 북한 의료선교단 2009년 제1차 회의

한국가톨릭의료협회(회장 최영식 신부)는 해외 및 북한 의료선교단 2009년 1차 회의를 지난 1월 7일 가톨릭대학 교 의과학연구원 1024호에서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했다.

2008년도 3명(엥크토야, 우린, 갈랑다오크)의 몽골 아 이의 치료 도움 상황을 설명했고, 2009년도 몽골 다르항 에서의 봉사활동 전반적인 내용(일정, 단원모집, 참가비, 단원규모 등)과 현지답사, 단원 피정 및 발대식, 약품·간 호물품 · 일반물품 기증 받기, 물품 운송 등을 논의했다.



### 대북의료지원 TFT 2009년 제 1차 회의

한국가톨릭의료협회 대북의료지원 TFT 2009년 제1차 회의가 팀원과 자문위원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 월 13일 가톨릭대학교 의과학연구원 1023호에서 진행되 었다.

한국가톨릭의료협회의 목적과 비전에 부합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가톨릭의료협회 산하에 속한 독립적인 명칭과 비전을 정립해 보고하기로 했으며, 2008년 사업으로 2009년 3월까지 지원하는 물품(소모품, 시약 등)과 기초 장비를 준비해서 검사실이 완공되기까지 현지 창고에 저 장하기로 했다.

200병상 정도의 기준으로 중소형 장비를 준비해 매뉴 얼로 기본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검사에 필요한 장비 와 기기에 관해 팀원들이 이메일로 의견을 교화하고 정리 해 차기 TFT에서 의견을 공유하고 확인하기로 했으며. 협회 사업은 강남군병원으로 확정해 치과, 산부인과, 소 아과를 특화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 정기총회 개최

한국가톨릭의료협회 정기총회가 지난 2월 11일 대전 유성 리베라호텔에서 개최되었다.

3개의 직능단체장과 회원병원대표 54명(위임장 포함) 이 참석한 총회에서는 2008년도 사업보고와 결산 및 2009년도 사업계획과 예산 심의와 승인이 있었으며, 가 톨릭병원협회 총회가 이어졌다.





전국단체 소식

#### 제17차 세계병자의 날 행사 참석

한국가톨릭의료협회가 주최하고 가톨릭대학교 대전성 모병원이 주관하는 '제17차 세계병자의 날'행사가 2009 년 2월 11일 수 오후 4시부터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상지홀(9층)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 받는 이들과 함께 한다는 인식을 환우들에게 심어주고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치유의 은총을 청하 며, 또한 환우를 돌보는 의료인들과 봉사자들이 더욱 큰 보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총 3부로 진행되었으며, 1부 기념식에서는 원목 실장 백광현 신부의 시작기도를 시작으로 병원장 박재만 신부의 개회사와 한국가톨릭의료협회장 최영식 신부의 기념사가 이어졌으며, 생활성가 가수 신상옥과 생활성가 팀 이사야 53의 축하공연이 열렸다.

2부 기념미사는 대전교구장 유흥식 주교의 주례로 초청 사제단이 공동 집전했다.



강론에서 유주교는 전 세계에서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과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세계 병자의 날'을 맞이해 우리 모두가 고통 중에 있는 분들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메시지를 전하며 17차 세계 병자의 날'에 대한 교황 담회문에 대한 설명을 했다.

3부에서는 대전교구장이 전인치료센터(호스피스병동) 와 51병동, 52병동을 방문해 입원 중인 환자들을 격려하고 안수했다.

### 제6차 가정간호분과위원회 개최

한국가톨릭의료협회는 제6차 가정간호분과위원회의를 지난 2월 20일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병원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전국의 회원병원 가운데 가정간호사업소가 있는 16개 기관에서 10개 기관 16명의 가정간호 업무 책임자 및 담당자들이 참석해 '가정간호 활성화 방안 및 가정간호 계속프로그램 소개' (김혜영 강남성모병원)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견학, 그리고 '각 병원별 실적보고 및 2009년 가정간호 중점 전략 나눔'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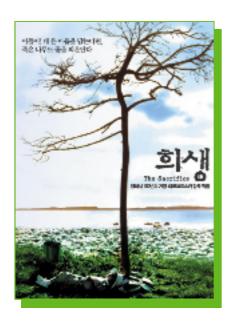
그리고 임원진 선출에서는 제2대 가정간호분과위원장에 정현숙 수녀(강남성모병원의 가정간호팀장)가, 부위원장은 성미순 선생(대구가톨릭대학병원 가정간호팀장)이 책임을 맡게 되었다.





### 좋는 • '틧화 • 보기

좋은 영화보기는 서울평협이 영화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교황청에서 선정한 위대한 영화 45편과 매년 미국 주교회의에서 선정하고 있는 좋은 영화 목록 가운데서 매월 첫 화요일에 상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희생

감독: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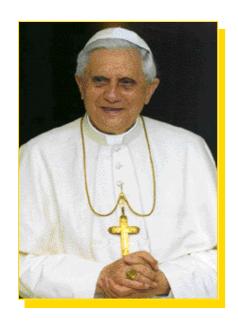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아들인 성모님의 희생으로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인간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생활 기간 동안 이웃을 위한 희생을 가르침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만큼 희생은 고귀한 가치입니다.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감독은 자신의 작품 '희생'을 통해 희생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퇴직 교수 안드레이는 자신의 어린 아들과 함께 죽은 나무를 심고 물을 주면서 3년 간 물을 주면 나무에 꽃이 피어난다는 전설을 들려주는 매우 긴 장면으로 영화는 시작됩니다. 시종일관 지루하고 좀 따분하게 진행되는 줄거리의 마지막 장면에서 안드레이 교수의 어린 아들이 죽은 나무에 꾸준히 물을 주는 장면으로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 감독은 희생이란 보통 사람들에게는 죽은 나무에 물을 주듯이 아주 어리석고 바보 같은 모습으로 보이겠지만 희망을 주는 고귀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성모님의 희생, 예수님의 희생 모두 바보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역시 바보스런 모습을 통해 고귀한 가치를 구현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묵상을 해보면서 선종하신 김수환 추기경님의 '나는 바보' 였다는 생전의 말씀을 다시한번 생각해 봅니다.



### 교화님·말씀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2009년 3월 1일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신자들에게 하신 삼종기도 훈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사순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성 마르코의 진지하고 간결한 문체로 이전례 시기의 분위기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성령께서는 곧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마르 1, 12) 성지에는 요르단 강과 예리코 오아시스 서쪽에 유다 사막이 있는데, 바위 돌로 뒤 덮인골짜기를 지나 천 미터쯤 되는 가파른 비탈을 올라가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뒤 예수님께서는 당신 위에 머무시며 당신을 축성하시고 당신이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밝히신 바로 그 성령의 인도로 그러한 고독에 빠져 드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체험이 보여주듯, 시련의 장인 사막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벗어버리신 그리스도님의 케노시스, 곧 자기 비움이 매우 극적으로 나타납니다.(필리 2, 6-7 참조) 죄를 짓지 않으셨고 죄를 지을 수도 없으신 그분께서는 스스로 시련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으십니다.(히브 4, 15 참조) 그분께서는 태초부터 하느님의 인류 구원 계획에 반대한 적(敵)인 사탄이 당신을 유혹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짧은 이야기 가운데 감히 주님을 유혹하고 있는 이 음험하고 사악한 존재 앞에 재빨 리 찬란하고 신비스런 존재인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복음은 천시들이 예수님의 "시중 을 들었다"고 말합니다.(마르 1, 13) 천사들은 사탄과 대칭을 이루는 존재입니다. "천사 "는 원래 "사자"를 뜻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인도하는 이 존재들을 봅니다. 토빗기만 보아도 될 것입니다. 거기 보면 라파 엘 천사가 나타나 여러 우여곡절을 겪는 주인공을 도외줍니다. 주님의 천사의 믿음직 한 현존이 온갖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합니다. 신약 성경이 시작될 무렵 가브리엘이 파견되어 자카리아와 마리아에게 우리 구원을 시작하는 기쁜 사건들을 알립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천사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던 요셉 에게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일러 줍니다. 천사들의 합창이 목자들에게 구세주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이처럼 그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여인들에게 알린 것도 릴 천사 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천사들은 영광 속에 오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올 것입니다.(마태 25. 31 참조) 천사들은 예수님 시중을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녕 이들보다 높은 분이 십니다. 이러한 이분의 품위는 여기 복음에서 신중하지만 분명하게 선포됩니다. 그렇 습니다.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 극도로 가난하고 비천하게 된 상황에서도 그분께서는 여전히 하느님의 아드님, 메시아,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느님께서 보내신 이 사자들을 한쪽 편으로 제쳐 놓는 다면, 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떼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선포하며 그러한 사실의 정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지기까지 그분을 따르는 일에 우리를 지원해 주도록 자주 천사들께 청합시다. 특히 오늘 오후 예년과 같이 일주일 피정을 시작하게 될 저와 교황청의 협력자들을 돌봐주도록 오늘 천사들께 청합시다. 천사들의 모후이신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 교화님.마씀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2009년 3월 8일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신자들에게 하신 삼종기도 훈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난 며칠 동안 저는 교황청에서 일하는 제 협력자들과 함께 피정을 했습니다. 침묵과 기도 로 보낸 한 주간이었습니다. 정신과 마음을 온전히 하느님 께. 그 분의 말씀을 듣는 데에. 그리스도님의 신비를 묵상 하는 데에 바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 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 라가셨을 때 이 사도들에게 일어난 것과 얼마쯤 같은 것입 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모습이 변하셨습니 다" 그 분의 얼굴과 옷은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전례는 이 유명한 이야기를 바로 오늘 사순 시기의 두 번째 주일에 다시 한 번 알려 줍니다. (마르 9, 2-10 참조) 예수님께서 는 당신 제자들이, 특히 이제 막 시작하는 교회를 이끌어 갈 책임을 맡을 그러한 제자들이 당신의 신적 영광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용감하게 십자가의 수치와 맞서도록 하시려 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배반당하실 때가 다가오자 기도하러 켓세마니로 가시어 바로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곁에 두시고 이들에게 당신과 함께 깨어 있으며 기도하라고 이르십니다.(마태 26. 38 참조)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리스도님의 은총은 이들을 떠받쳐 주고 이들을 도와 부활을 믿게 해줍니다.

저는 예수님의 영광스런 변모는 본질적으로 기도의 체험이었다는 점을 진정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루카 9, 28-29 참조) 실제로 기도는 인간의 영이 하느님의 영과 합치하여 두 영이 거의 하나를 이룰 때 절정에 이르고 그리하여 내면의 빛을 발하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분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의 계획에 대한 명상에

잠기셨습니다. 예수님 곁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성경이 한 목소리로 그분의 부활 신비를, 즉 그리스도님께서 당신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 고통을 당하고 돌아가셔야 한다는 것을 선포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였습니다.(루카 24, 26, 46 참조)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 죽음의 지배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필요한 최고의 희생인 십자가가 당신 앞에 나타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마음속에서 다시 한 번 당신의 "아멘"을 되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예'라고, '제가 있습니다'라고,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르단 강에서 세례 받으신 다음에 일어났던 것처럼 하느님 아버지께서 만족해하시는 징표가 하늘에서 내려 왔습니다. 즉 그리스도님의 모습을 변하게 한 빛,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마르 9, 7)이라는 소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단식과 자선 사업과 더불어 기도는 우리 영적 생활을 이끌어 가는 틀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사순 시기에 오랜 동안 침묵하는 시간, 가능하다면 피정을 갖고 천상 아버지의 사랑의 계획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를 권합니다. 이렇게 하느님께 정신을 집중하여 귀 기울임에 있어서 기도의 스승이요 모범이신 동정녀 마리아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자신을 내 맡기십시오. 그분께서는 그리스도 수난의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당신의 마음속에 하느님 아들의 빛을 잃지 않고 간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뢰와 희망의 어머니이신 그분께 간청합시다.

